

달라서 아름다운 세상
우리 함께 만들어요





이제 봄 기운이 만연해졌어요.
오늘은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
집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
한 번 둘러볼까요?

나무가 참 많네요.
그냥 스쳐 보기에는
다 같은 나무처럼
보이는데요.





저와 함께 볼까요?
꽃이 피어서 자세히 보니,
이 나무는 벚나무네요.



연초록 싹이 나서 살펴보니
이 나무는 은행나무네요.



자세히 살펴보니
나무마다 특징도 다르고
나무마다 이름도 다르네요.





우리 학교
어린이들도 나무와 같아요.
저마다 다 다른 특징과
이름을 가지고 있지요.

그렇군요.
모두 똑같은 아이들만 있다면
교실이 아름답지 않고
답답해 보일 것 같아요.





여러분은
[다름]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?
[다름]을 [틀림]으로
보고 있지는 않나요?





매년 4월 20일은
장애인의 날.
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
입니다.



[다름]은 [틀림]이 아닙니다.



[다름]은 [아름다움]입니다.

우리 어른들이 먼저
“달라도 괜찮아”
“달라서 더 아름다운 거야”라고
다름의 존중과 가치를
인정해보는 것은
어떨까요?

